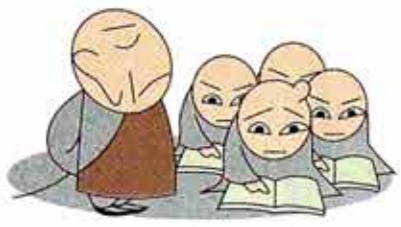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상강좌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3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3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승가교육

승가교육이 바로서야 불교가 바로선다.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조계종 사태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승려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참 수행자의 길을 걷기 위해 출가 수행을 결심한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 그러나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규모가 큰 종단에서 조차 승가교육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그나마 조계종이 지난 94년 개혁 이후 교육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기초·기본·전문·특수·재교육으로 이어지는 승가교육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행자교육 기간 연장, 기본교육기관의 중복이수 문제를 비롯 교수인력 수급문제, 교육시설 부족 등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교육 체계등 점검

불교 경쟁력 회복

또한 교육기관 간의 자기고립적이고 배타적인 이기성 타파도 선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통교육기관은 수행자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대학은 복지·문화 등 불교와 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스님들의 지적은 평생교육으로서의 승가교육의 방향을 대변해 준다. 강원,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 선원, 율원 등 저마다 특성을 지닌 교육기관들이 교류 협력하지 않고서는 승가교육의 체계화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태고종과 천태종등 여타 종단도 행자교육을 중심으로 매년 정식 승려를 양성하고 있지만 내용과 체계면에서 열악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전법과 수행을 목표로 하는 승가의 경쟁력은 승가교육으로 이뤄진다. 경쟁력을 갖춘 미래불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체계를 점검하고, 종단간 교육주체간 교육의 상호 교환과 위탁 교육 등 승가교육 정립을 위한 대안 마련에 다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정부 종무실 축소검토 종교계 "절대 안된다"

정부 기획예산위원회가 종교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유일한 조직인 문화관광부 소속 종무실을 축소 개편하려 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지난달 정부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교육문화분야의 경영진단을 모니터컴퍼니와 애경경영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영진단 결과 두 회사는 문화부 종무실을 없애고 대신 문화정책국 산하에 종무과를 두는 방안을 마련, 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종교관련 실무 책임자는 종무실장(1급공무원)에서 과장(4급공무원)으로 격하된다. 결국 정부의 종교행정 서비스 분야 전반이 축소되는 것. 종교인구가 늘어나고 종교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종무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구조조정만 염두에 두고 현실을 살피지 못하는 처사"라는 게 종교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4일 종무회의에서 "종무실을 그대로 존치토록 해야 한다"는 종단입장을 정리하고 정부당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또 종단협 등 교계 단체는 물론 타종교 단체들과 연대해 종무실을 존치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도 종무실 존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작성, 국회와 청와대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문화부 종무실은 그간 종교계와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종교정책의 바른 길을 제시해 왔다"며 "종무실의 폐지는 종교 행정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종교와 정부간의 조정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자림스님도 "종교간의 화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종교관련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관련 행정 부서를 축소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현재 종무실 관계자들도 기구축소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문화관광부 구조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이달중 열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혜초스님 음악으로 환생

'누가 게릴으로 날아가 내 소식 전할거나' 1300년전 오천축국을 순례하며 낮달 같은 고독으로 조국을 그리던 혜초스님이 장중한 교성곡의 선율로 환생했다.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을 기리는 국악교성곡 '혜초(장지현 작사 김희경 작곡)'가 2월 27일 오후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됐다. 본사와 대한불교 진각종이 공동 주최한 이 음악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한 25개 종단 대표와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 관계 인사, 불교계 단체장 등 2천여 시부대중이 함께 했다. 〈관련기사 7면〉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한국불교 전법의 상징

광덕 대선사 원적

불광법회 법주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대선사의 영결식이 3일 부산 범어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수됐다. 2월 27일 부산 범어사 염화실에서 세수 73세, 법랍 50세로 원적에 든 스님은 수행과 전법이 둘이 아님을 바라밀 운동을 통해 실현한 이 시대 불교 대중화의 선각자였다.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해 55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스님은 56년 대각회를 창립해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74년 순수 불교교양지 월간 〈불광〉을 발행, 75년 불광법회 창립, 거사불교활성화, 찬불가 창작 등 불교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관련기사 22면〉

이은자 ·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성보도난 백서 조계종 5월 발간

1987년부터 현재까지 불교성보 도난 건수는 모두 2백건이 넘는다. 보물 2점과 지방유형문화재 3건을 포함한 도난성보에 대한 종합 자료집이 발간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은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성보도난 백서〉를 간행할 계획이다. 도난성보 목록을 공개해 종단 안팎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또 장물(贓物)이 되어버린 성보들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문화재 감정의뢰 업체등이 도난성보를 발견할 경우 회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성보도난 백서〉는 그간 도난 당했다가 회수된 성보에 대한 현황과 회수 경로 등도 함께 실을 계획이어서 성보찾기의 안내자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2백쪽 분량으로 제작될 이 백서에는 제작 시대, 문화재 지정여부, 도난일자, 원소재지, 크기, 재질 등 도난 성보에 대한 종합 정보가 수록된다. 특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도난품에 대한 특징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3월초부터 백서 발간작업에 돌입, 전국 본말사와 검찰청, 문화재관리국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이 작업을 진행하며 그간 도난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성보 실태와 회수 사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작업은 도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방지대책을 세우는 계기도 될 것"이라 설명했다. 〈성보도난 백서〉는 1천5백부 가량 발간돼 주요 사찰과 문화재 관련 기관, 검찰과 경찰 문화재 전담 부서, 골동품 관련단체 등에 배포된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139회 종회 22일부터 26일까지

조계종 제139회 임시중앙종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총무원청사 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중앙종회는 4일 종회의장단과 각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종회일정과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불기2542년 결산검사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임연태 기자

국민정부 출범 1년 조계종 입장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김대중대통령 취임1주년에 즈음한 조계종의 입장을 발표했다. 고산스님은 "새로운 도약과 융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전 국민이 상생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벳 · 몽골 밀교예술전 11면

알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 ·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우리불교(韓國佛敎) 어디로 표류(漂流)하는가?!

불교(佛敎)의 참뜻은 무엇이며 승가(僧伽)본연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국 불교의 앞길은 밝습니까?
- 누가 이 화두(話頭)를 던지게 했습니까? 광란(狂亂)의 야단법석(野壇法席). 그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은 한국불교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단 내부 사태를 넘어서 한국불교를 망치는 **해불행위**였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한국불교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종단은 수행가풍의 확립과 사찰재정의 투명화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또다시 그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승가가 하나되어 뼈를 깎는 아픔으로 환골탈태해야 겠습니다. 이에 **대한불교 전국 산악인연합회**는 온 국민과 불자의 가슴을 상하게 했던 조계종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종단의 안정과 불교발전을 위해 전국 회원단체 구성원 **30,000**여 정회원 불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합니다. 현재 종단의 책임있는 기구와 인사들이 이같은 원칙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종권탈착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할 경우 한국불교는 한국사회의 주변부에 머물 뿐이라는 위기의식의 표현임을 밝혀둡니다.

1.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재정관리 - 조계종 사태를 계기로 양측에서 천원할 수십억여원으로 추정되는 돈은 누가 시주한 돈이었습니까? 앞으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신도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찰운영위원회에서 일체의 재정을 관리하며 스님들의 결재하에 집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종회 구성 - 조계종은 사대부중으로 구성한다는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우선 종회부터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① 상원을 승가로, 하원을 재가로 하는 상·하원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②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한다면 승가와 재가, 동수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3. 승풍 진작과 승가 정화 - 청정승가상 구현을 위해 스님들은 수행자 본연의 수행에 전력하고, 지난 조계종 사태 당사자 스님들의 철저한 참회와 대오 각성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것이며 이를 계기로 수행정진과 대중포교에 전념하고 계시는 절대 대다수의 스님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극진한 존경으로 사표를 삼을 것이나 극소수의 권력승·탐욕승·축첩승·도박승 등 해불행위자는 발본색원하여 퇴출 및 예경과 법사대우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문중파벌 조장 타파 - 문중불교 폐습을 타파하고 일불제자(一佛弟子)로 단결해야 합니다.

5. 신도회 조직 - 각 사찰 회장단 및 임원은 스님들에 의한 임명이 아니라 재가불자들에 의한 자율적 선출직으로 해서 철저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 재가 불자의 역할 강화 - 승가의존 일변도에서 탈피, 종단의 한 운영주체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저희 대한불교 전국산악인 연합회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산이 좋아 산에 가고 절(寺)이 있어 산에 가는 약 1,000만 준회원 자원 중 우선 향후 2~3년 내에 50여만명의 정회원을 확보하여 산행을 통한 포교에 힘쓰며 자연 환경보호와 불교문화 창달 보전 및 효(孝)사상 전파 생활화에 앞장서면서 순수 정통 불교구현에 일심동체로 전력할 것입니다.

대한불교 전국 산악인 연합회 총재 : 손 현 수

부 총 재 : 정인악 권기종 한계수 이상우 양계숙 임선교
사무총장 : 김대원

중앙회 감사 : 양장운 이옥순
이사 : 차동수 송영길 이용해 최해성 노상원 김승희 한민수 진민자 최복숙 김정애 황순화 정순희 김종순 황상섭 신창숙 변영자 손병국 김원호 이재삼 김장근 최점순 정호용

중앙회사무국 2232-6948~9 FAX 2233-5445
주소 : 서울 중구 신당2동 421-1 대현B/D 3층
인터넷 주소 : http://www.buddhapia.com

단위산악회 회장단

서울동부불교산악회 차동수
서울연심회불교산악회 유재근
서울불교산악회 금강예아리 윤부윤
서울북부불교산악회 김광호
서울불이산우법회 조인행
부산불교산악회 류동길
부산청년불자산악회 김정관
대구불교산악회 정병국
인천불교산악회 조병용
공주불교산악회 김재승
대전불교산악회 지우하
대전한밭불교산악회 오도강
대전반야불교산악회 김상준
대전비봉불교산악회 이제상
강원고성불교산악회 김응규
양산불교산악회 김학조
광명선원불교산악회 최두혁
경남고성불교산악회 옥윤중
거제불교산악회 조부환
속초불교산악회 최상길
양양불교산악회 박노영
대전약사불교산악회 박암이
인제불교산악회 현광호
장승포불교산악회 이경언
영주불교산악회 천중기
안동불교산악회 최상조
예천불교산악회 김형십
문경불교산악회 김경수
옥포비로자나불교산악회 김무숙
전주룸비니불교산악회 윤도아
남원불교산악회 구자용
제주불교산악회 김재철
충북불교산악회 김정길
고양시불교산악회 구윤회
성남불교산악회 유덕수
수원불교산악회 임병선
전국장애인불자연합회 나경선

중앙회 사무국 기획부장 이기풍 조직부장 김남수 홍보부장 김중근 산행부장 나상호 청년부장 이성훈 총무간사 박희정